

## 『삼국유사』 소재 건국 신화와 인도 신화의 유사성 비교\*

칸 앞잘 아흐메드\*\*

- I. 서론
- II. 단군신화와 인도의 건국신화
- III. 가야국과 인도의 聖地 가야
- IV. 결론

### 국문초록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함께 한민족의 고대 이야기를 보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짙은 문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삼국사기』보다 콘텐츠 개발 면에서의 텍스트 확장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보아야 한다.

본고는 『삼국유사』의 문학적 가치를 주목하여 단군신화에 대해서 인도 신화와와의 유사성 비교를 진행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 단군은 인도인의 조상 바라타처럼 천계의 신과 대지의 원주민이 같이 낳은 혼혈아

\* 이 글은 계명대학교 아카데미아 후마나가 2022년에 개최한 “이상한 이야기 책 삼국유사” 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 afzal@hanmail.net

였다. 다만, 한민족의 조상인 단군은 환인 제석천황 인드라의 직계 후손인 반면에, 인도의 조상인 바라타는 다른 신의 직계 후손이다. 제석은 인도를 지배하던 신이었기에 환웅을 한반도에 보냈을 때 인도의 문화를 수용해서 신단 나무 밑에 내리게 했다. 그렇기에 신단 나무가 중요시되게 되고 단군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에 훗날 불교적 교류로 인해 한국의 가야 왕국이 생기게 되었는데, 가야의 설립자인 수로왕이 미지의 곳에서 낯선 명절과 비슷한 문화를 가져온 이방인이었다는 김부식과 일연의 설명을 고려한다면, 문학적 시각에서 볼 때 수로왕은 인도의 왕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쩌면 일연이 인도 이야기를 통해서 한반도의 포스트 차이나를 시도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삼국유사』에는 인명, 지명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한 인도 요소가 등장하고 있어 심도 있는 『삼국유사』의 독해를 위해서라면 인도 문화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비교 연구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일연, 삼국유사, 한국, 인도, 건국신화, 가야국, 인도 가야, 불교문화

## I. 서론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함께 한국의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평가된다. 특히 『삼국유사』에는 한국의 신화, 민담, 시, 노래, 문화 및 외국과의 교류 등이 수록되어 있다. 김부식에 의해 쓰인 『삼국사기』는 正史로 평가받는가 하면 일연의 『삼국유사』는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인해 正史가 아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비록 『삼국유사』가 국가에서 편찬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편찬한 것이지만 문학적 가치가 크다고 봐야 한다. 노스럽 프라이는 “신화는 인간적 세계와 비인간적 세계를 동일시하는 상상력의 단순하고도 소박한 노력”이라고 하며, “문학이란 신화의 연장이며 문학의 구조적 원리란 신화에 불과하다”<sup>1)</sup>고 하였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전반부는 紀異 즉 ‘神異한 이야기들’과 역사 속 인물들을 같이 다루고 있다. 이는 『삼국유사』를 일종의 역사책이라기보다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함을 의미한다.<sup>2)</sup> 다시 말해 신화와 문학은 둘다 인물, 주제, 교훈 전승 등의 설정을 지닌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삼국유사』를 순수한 문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한국의 건국 신화도, 가야국의 이야기도,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인도와의 교류도, 불교문화의 전승 등 다양한 고대의 이야기들도 전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신동욱에 따르면 “신화는 하나의 이야기이거나 설화인데 그 기원과 성격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직관적이다.” 또한, 그는 “본질적으로 신화는 논의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과는 다르며, 또 논의·논리·체계적인 것에 선행한다.”<sup>3)</sup>고 하였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기

1) 이명재 외, 『문학비평의 이해와 활용』, 경진, 2014, 209쪽.

2) 사재동은 ‘삼국유사’의 각 편들은 거의 모두가 서사적 구조, 형태와 분위기를 갖추고 있고, 잘 알려진 대로 이 각 편들이 시종 신이를 구조로 신비성, 기이성, 제의성에 의한 허령, 환상, 신묘의 작품세계를 허구, 창조해 내고 있다. 그래서 이 각 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소설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재동, 『삼국유사의 문예 현상과 문학의 갈래, 그 연행 양상』, 민속원, 2021, 42쪽 참조.

3) 신동욱, 「신화비평론 서설」, 『신화와 원형』, 고려원, 1992, 32쪽. 이명재 외, 앞의 책,

이한 이야기들의 존재 가치가 역사책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삼국유사』는 ‘한국 고대인들의 정신적 유산의 기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삼국유사』와 관련하여 무려 1000편 이상의 학위 논문<sup>4)</sup>이 발표되었으며, 학술논문은 3000편 이상<sup>5)</sup>, 그리고 단행본<sup>6)</sup>은

---

209쪽 재인용.

- 4) 최근의 주요 학위논문으로 이상설, 「《三國遺事》 人物說話의 小說化 過程 研究」, 明知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5.; 정귀원, 「서사구조로 본 『삼국유사』: 공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원양희, 「《삼국유사》 속 인물들의 미적 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은령, 「삼국유사의 佛法傳書적 이해」,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양지옥,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적용 연구: 『삼국유사』 소재 스토리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정진원, 「『삼국유사』의 한국학 콘텐츠 개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이지환, 「삼국유사의 불국토 세계관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고은채, 「『삼국유사』, 「수로부인」 전승의 서사구조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서순희, 「『삼국유사』의 밀교신앙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이은주, 「『三國遺事』 土着信仰의 불교적 融和 과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등이 있다.
- 5) 최근의 대표 소논문으로는 이대형, 「『삼국유사』 소재 ‘기이’의 서사방식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21, 한국한문학회, 1998.; 이재원, 「단군신화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韓國漢文學研究論文集』 4, 한국체육대학교, 1999.; 차광호, 「『삼국유사』 “기이(紀異)” 편의 저술 의도와 고구려 인식」, 『史學志』 41, 단국사학회, 2009.; 하카마타미즈 야스, 「『삼국유사』에 있어서의 환인과 제석- 일본의 천신신앙을 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淵民學志』 14, 연민학회, 2010.; 박기석,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읽기의 한 방법」, 『문학치료연구』 1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명계환, 「『삼국유사』의 불교(佛敎) 관련 문헌(文獻)과 과제(課題)」, 『불교철학』 9, 2021.;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의 원전비평- 누락자, 연자, 전도구 등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64, 한국중원언어학회, 2022, 김성환, 「단군 신화에서 역사로」, 『동북아역사논총』 76, 동북아역사재단, 2022.; 윤용혁, 「몽골전란과 『삼국유사』의 일연- 『삼국유사』를 통해서 본 몽골전란」, 『한국중세사연구』 69, 한국중세사학회, 2022 등이 있다.
- 6) 최근의 대표 단행본으로는 정우락, 『삼국유사 원시와 문명 사이』, 역락, 2012.; 표정옥, 『삼국유사와 대화적 상상력』, 세종, 2013.; 최광식, 『삼국유사의 신화 이야기: 신화인가? 역사인가?』, 세창출판사, 2018.; 서재동, 『삼국유사의 문예 현상과 문학의 갈래, 그 연행 양상』, 민속원, 2021.; 고운기, 『삼국유사의 재구성』, 역락, 2021.; 최광식, 『『삼국유사』 읽기』, 세창미디어, 2021.; 서철월, 『삼국유사 속 시공과 세상』, 지식과교양, 2022 등이 있다.

무려 3800편 이상이다.<sup>7)</sup> 또한 최근 해외에서도 『삼국유사』 관련 연구 및 번역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삼국유사』 속 신화나 기이한 이야기에 대한 역사적 진실성 찾기, 설화나 민담을 통해서 역사성을 극복하려는 연구자들의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인도의 고전 대서사시인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를 연구하는 인도인들의 시각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는 기원전 300년 경 인도에서 저술된 귀중한 문헌적 가치를 지닌 문학 작품들이다. 이는 신화 속의 기이한 이야기들을 正史 못지않게 역사성을 띤 자료로 간주하려는 현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일단, 『삼국유사』를 문학으로 볼 것인가 역사책으로 볼 것인가

7) 『삼국유사』와 관련 자세한 논저 목록은 한국연구정보서비스(RISS)의 홈페이지(<http://www.riss.kr>) 참조.

8) 지금까지 『삼국유사』 관련 주요 해외 연구로 Sorensen and Henrik H., 『Problems with Using the Samguk yusa as a Source for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Cahiers d'Etudes Coreennes』 Vol.-7, Centre d'etudes Coreennes of the College de France, 2000. ; James H. Grayson, 『Digging Up Buddhism: Tales Affirming the Antiquity of Buddhism in the Samguk Yusa』, 『Acta Koreana』 Vol. No.-7, Academia Koreana, 2004. ; Richard D. Mc Bride II, 『Is the Samguk yusa Reliable? Case Studies from Chinese and Korean Source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No.- 11(1), Duke University Press, 2006. ; Richard D. Mc Bride II, 『Preserving the Lore of Korean Antiquity : An Introduction to Native and Local Sources in Iryon's Samguk Yusa』, 『Acta Koreana』 Vol. No.- 10, Academia Koreana Press 2007 등이 있다. 이처럼 2000년 이후 몇 해의 연구자들에 의해 『삼국유사』의 내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삼국유사』의 외국어 번역도 이루어지고 있다. 『삼국유사』의 영어 번역은 2 가지 판본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1972년에 Tae-Hung Ha 와 Grafton K. Mintz의 『Samguk yusa : Legends and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of Ancient Korea』 번역이 연세대출판부에서 나왔다. 그 후 최근에 Kim Dal Young의 『Overlooked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orean Kingdoms』가 2006년에 Jimoondang 출판사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 두 권 모두 번역 품질과 내용은 매우 빈약하고 번역자의 정보 또한 확인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번역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두 번역자가 『삼국유사』나 한국 고전문헌의 연구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앞으로 『삼국유사』의 연구를 국제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영어 번역본이 나와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 영어 외에 최근에 프랑스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도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의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이 머리말에서 밝힌 ‘기이한 이야기’의 편찬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개 옛 성인이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풀 때에 괴이한 일과 헛된 용맹, 그리고 어지러운 일과 귀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에는 符命과 圖籙을 받들어,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는 뒤에야 큰 변화를 타서 천자의 지위를 얻어 왕업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黃河에서 그림이 나오고, 洛水에서 글씨가 나타나 성인이 태어났다. 심지어는 무지개가 神母를 둘러싸서 伏羲를 낳았고, 용이 女登과 교접해 炎帝를 낳았다.

皇娥가 窮桑의 들뜰에서 놀 때 神童이 스스로 ‘白帝의 아들’이라 일컬으면서 정을 통해 少昊를 낳았고, 簡狄은 제비알을 삼키고 契를 낳았다. 姜嫄은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弃를 낳았으며, 堯은 잉태한 지 열넉 달만에 태어났고, 용이 큰 못에서 교접해 沛公을 낳았다.

이 뒤의 일들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하고 기이한 데서 나왔다 한들 어찌 괴이하랴. 이것이 「기이」를 여러 편 앞에 두는 까닭이다. 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sup>9)</sup> (밑줄 친 부분은 인용자 강조)

일연은 始祖와 왕을 비롯한 한민족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삼국유사』를 썼다. 일연은 중국 문화권에서의 기이한 이야기들을 앞세움으로써 자신이 속한 한민족의 기이한 이야기를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내세운다. 만일 중국의 신이한 이야기들이 전부 역사의 일부라면, 『삼국유사』의 이야기들도 정당한 正史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연이 한민족의 문화는 중국의 문화와 위치가 동등하다는 시각을 주장한 것이다.<sup>10)</sup> 그리고 일연이 이 책을 집필한

9) 일연, 『삼국유사』 권1, 기이, 고조선. ; 이가원 외 옮김, 『삼국유사』, 한길사, 2014, 63~64쪽. 본고는 필자의 관점과 가장 맞아떨어진 한길사에서 발행한 판본으로 참고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10) 정우라이 한국의 중가 문화를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시킬 것을 주장하며 “한국의 중가문화는 중국의 그것에서 기원하고 있으나 한국의 문화 환경에 따라 많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북의 경우 더욱 다양한 변용을 거치며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정우라, 「중가 문화의 세계유산적 전망」, 『영남학』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연의 뜻을 받들어 『삼국유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필자의 신분인 인도인의 시각에서 접근하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유사』에는 인도와 관련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 가령 다양하게 등장하는 인도 요소(불교는 물론, 밀교 문화, 지명, 인명까지)를 무시한다면 『삼국유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다소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 『삼국유사』 읽기에 있어서 인도의 고대 이야기들과 함께 놓고 비교해 보아야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

왜 『삼국유사』에 인도 고대 이야기를 떠올릴 만한 부분들이 존재했을까?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삼국유사』의 신화 이야기를 인도의 신화 이야기와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기이 상편에 나온 고조선 단군신화와 인도의 건국신화의 유사성에 대해 비교한다. 인도 신화와와의 비교를 통해서 한민족의 뿌리인 단군이 왜 단군이라고 명명되었는지, 왜 환웅이 태백산의 신단 나무에 보내졌는지, 그리고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신의 신분인 단군이, 왜 환웅보다 더 중요한 조상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가락국의 수로왕과 허황옥의 이야기 및 인도의 불교 성지인 가야의 이야기에 나타난 유사성을 비교한다. 이 비교를 통해서 왜 가야국<sup>11)</sup>이 가야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야국의 설립자인 수로왕이 당시 어떻게 먼 타국인 인도인 공주를 매우 쉽고, 그리고 빠르게 자신의 신부로 맞이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연이 언급한

---

3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이는 한국의 종교문화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기원했다가 한국의 환경에 따라 변화된 또 다른 한국의 문화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인도 문화나 문화에 기원했을 수 있는 한국 문화의 양상을 조명하는 목적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11) 백승충에 따르면 가야는 국명으로 칭해지고 있으나 영역적으로나 관념적으로 통일된 국가체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야지역 내의 독자적인 제 세력권 혹은 문화권의 총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가야사는 어느 한 정치나 문화체를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서술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백승충, 「가야문화권의 성립과 그 의미」, 『영남학』 1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어찌면 본 연구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가야 관련 이야기의 서술 방식이 성립될 지도 모른다.

인도 승려와 한국 승려 사이의 교류를 주목하며 고대부터 한국과 인도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왔다는 사실<sup>12)</sup>을 논의하면서 결론을 짓도록 한다. 승려들 간의 교류 양상을 통해서 저자인 일연이 왜 인도 고전 이야기를 떠올릴 만한 요소들을 설정했는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단군신화와 인도의 건국신화

단군의 이야기를 한민족의 신화로 보는 시각은 당연하며, 나아가 몇몇 연구에서는 단군신화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려는 것도 엿볼 수 있다.<sup>13)</sup> 인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건국 이야기를 인도의 신화로 보며 혹은 현실적인 역사의 맥락에서 보려고 한다.<sup>14)</sup> 고대인의 생각을 현대인의 관점에서 무책임하게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일연이 『삼국유사』의 머리말에서 말한 것처럼 신비롭고 기이한 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단군은 환인의 손자로 나온다. 『삼국유사』에서 환인이란 제석<sup>15)</sup>의 다른 이름으로 설명되는데, 그것은 곧 因陀羅(Indra)신이다.

---

12) 정우락이 『삼국유사』에 나타난 부처님 요소를 주목하며 다룬 바 있다. 정우락, 『삼국유사 원시와 문명 사이』, 역락, 2012 참조.

13) 김성환, 「단군, 신화에서 역사로」, 『동북역사논총』 76, 동북역사재단, 2022. ; 윤승준,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단군신화 연구 비판」, 『한국고대사탐구』 4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2 등 참조.

14) 인도의 고전문헌을 분류할 때 인도의 전통학자들은 주로 『베다』를 그린타(Grantha) 즉 경전;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같은 신들 관련 이야기를 뿌라나(Purana) 즉 전설; 서사시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를 이띠하사(Itihasa) 즉 역사라고 지칭했었다. 여기서 이띠하사(Itihasa)를 직역하면 ‘과거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이띠하사(Itihasa)라는 표현은 ‘역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인도 사람들은 고대인들의 ‘과거 이야기’로 분류되었던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에 나타나는 기이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실제 역사의 맥락에서 보려고 하고, 현실의 일부로 믿기도 한다.

15) 불교 문헌에서 제석은 한문과 범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글자로서 수미산 저앙에

인드라는 인도 고대 신화에 나온 모든 신들 중, 가장 강하고 지위가 높은 신으로서 신들의 왕으로 불린다.<sup>16)</sup> 『리그베다』 문헌에 따르면 인드라는 대지 위에 있는 모든 종족과 인종을 품을 수 있는 하늘의 최고의 신(Swarga Maha Deva)이라서 인간의 친구로도 여겨지며, 동시에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비,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雷雨神(Vajra Pani Deva)이다.<sup>17)</sup>

『리그베다』 경전에서 인드라는 풍요를 관장하는 주신으로 백색 코끼리를 타고 손에 金剛杵를 든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오늘날 인도에서 이 정도로 강렬한 힘을 가진 천신 인드라, 즉 제석 천황을 신앙으로 모시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는 오늘날 인도의 고전 문헌 속의 신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현재 그 ‘대지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인간의 친구이자 하늘의 최고의 신’이 어디서도 신앙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잊혀진 신이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드라, 즉 단군의 할아버지인 제석 환인이 인도의 신처럼 보이지 않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인도의 건국 신화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가 왜 아들 환웅을 한반도에 보냈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석은 인도에서 지도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한민족의 신이 되었기 때문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인도의 건국 신화, 즉 ‘바라타(Bharata)’라는 나라의 건국 이야기<sup>18)</sup>에

---

있는 도리천의 임금을 말한다. 즉, 인드라로 알려진 제석은 남구루(Uttara Kuru) 천상 왕국의 천황으로 나오며, 인도의 불교 차이나교와 힌두교 문헌에서 그는 중요한 신으로 등장한다.

16) 인도 고전문헌에서 인드라는 데빈드라(Devindara), 라빈드라(Rabindara), 인드라(Indara), 인드라테바(Indara Deva), 마힌드라(Mahindara), 아마렌드라(Amarindara) 등 접두사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으며, 인도의 삼주신인 브라흐마(Brahma), 비슈누(Vishnu)와 시바(Shiva)를 제외한 모든 신들의 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17) Dr. Tulsi Ram, Rig Veda-1 (English translation), Arsh Sahitya Parchar Trust Press, New Delhi, 2006 참조.

18) 인도의 건국 신화를 이해하려면 5세기경에 저술되어 인도 고전 최고(最古)의 명작으로 여겨지는 칼리다사(Kalidasa)의 『샤쿤탈라』를 참고할 수 있다. 칼리다사 저, 박경

따르면 인드라는 처음에는 인도 대지의 신이 아니라, 북쪽의 구루(Kuru) 왕국의 수도인 수미산(Sumeru)에 사는 天의 왕이었다.<sup>19)</sup> 당시 인도는 여러 지역에 다양한 부족들이 모여 사는 원주민의 땅이었으며, 그 원주민들이란 天의 백성이 아니라, 『삼국유사』에서 나온 웅족과 호족처럼 지상에서 사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다. 이 원주민들은 밀교(Tantra)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도 문헌에 따르면 이들은 밀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비슈와미트라(Vishwamitra)라는 한 부족 왕이 있었다.<sup>20)</sup> 비슈와미트라는 계속해서 인드라와 충돌이 있었고, 인드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히말라야 산에 가서 조용히 명상을 함으로써 인드라보다 더 큰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한다. 비슈와미트라는 큰 힘을 얻어 인드라의 천상을 파괴하여 자기만의 새로운 천상을 건설할 목표를 세웠다.

원주민 비슈와미트라의 복수와 공격 계획을 알게 된 천상의 신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인드라에게 비슈와미트라를 막을 방법을 요청한다. 이에 인드라는 천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천(Apsara)인 멘카(Menka)에게 비슈와미트라의 수행을 방해할 임무를 맡긴다. 임무를 받고 천계에서 내려온 멘카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자신의 뛰어난 미모로 비슈와미트라를 유혹한다. 그러다가 결국 둘은 진실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멘카는 자신이 비슈와미트라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상에 내려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와 결혼하여 예쁜 딸인 샤쿤탈라(Shakuntala)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지상의 원주민과 천상의 요정 사이에서 반은 인간, 반은 천신의 몸을 가진 아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인도 신화 이야기의 구조가 천상의 신인 환웅과 지상의 원주민인 웅녀 사이에서 태어

---

숙 역, 『샤쿤탈라』, 지식산업사, 2002 참조. 그 외에 베드 브야스의 『마하바라타』도 참고할 만하다.

19) 깔리다사 저(박경숙 역), 『샤쿤탈라』, 지식산업사, 2002, 18쪽 참조.

20) 비슈와미트라(Vishwamitra) 관련 자세한 이야기는 기원전 3세기의 발미키(Valmiki)가 저술한 『라마야나』와 브야스의 『마하바라타』에 나온다. 이 외에도 그와 관련한 이야기가 인도의 여러 신화 책에서 나온다. 그는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라마신(Rama god)의 대승승이며, 활을 쏘는 법을 가르친 이름난 성자였다.

난 단군의 사례와 매우 비슷하다.

비슈와미트라라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수행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으나 어느 날 자신이 인드라의 농간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멘카에게 실망하고 멘카와 영영 이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다시 산속에 들어가 수행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 인드라의 천상낙원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지상의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멘카는 지상인의 몸을 가진 딸 샤쿤탈라를 천상에 데리고 갈 수 없으므로 딸을 두고 천계로 돌아갔다. 한편, 훗날 샤쿤탈라는 숲속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상의 숲에 사냥을 온 천상계 남쪽 구루 왕국(남구루 왕국(Dakshina Kuru))의 왕자인 두산타(Dushyanta)와 만났고, 두 사람은 서로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여 바라타(Bharata)라는 아들을 낳게 된다. 이 아이는 3분의 2정도는 신의 몸으로, 3분의 1정도는 인간의 몸을 가지게 되었다. 바라타는 장성하여 전인도의 왕이 되었고, 인도의 고대 이름인 바라타가 곧 이러한 배경에서 생기게 된 것이다.<sup>21)</sup>

이상의 인도 건국 신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상의 비슈와미트라와 천상의 인드라는 적대적인 관계였다. 심지어 비슈와미트라가 인드라의 천계를 파괴하려는 것을 보면 인드라는 인도인 원주민에게 선한 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슈와미트라라는 인드라의 간계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행을 하여 영적인 힘을 모아 인드라의 세계를 파괴하고 지상 낙원을 건설하기로 한다.<sup>22)</sup>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인도의 대서사시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에서 건국 신화의 조부(祖父)로 묘사되며, 오늘날 인도에서 인드라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양성한 제자인 라마(Rama)신이 인도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신이 되기도 한다.

21) 현재 인도인들이 여전히 인도를 바라타(Bharat)라고 부른다. 인도의 헌법에서는 인도의 공식 명칭은 ‘바라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인도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신화를 바탕으로 시작된다. 비야사 저(주혜신 역), 『마하바라타』, 민족사, 2005 참고.

22)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고문헌인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 외에도 1989년에 인도 국립방송국인 Doordarshan에서 방영된 드라마 『비슈와미트라』가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인도의 건국신화를 이해하고 나서 단군신화에 나타난 제석 천황인 인드라가 아들인 환웅을 멀리 태백산으로 보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아래 인용문을 통해서 헤아려보자.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에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얻기를 원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내려다보았더니 땅에 세 가지 위험이 있었다. 태백산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만한 곳이었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천부인 세 가지를 주고 이곳에 가서 다스리게 했다. 환웅이 삼천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 신단수 아래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했으니, 이분이 바로 환웅천황이다. …

이때 곰 하나와 범 하나가 같은 동굴에서 살면서 항상 신인 환웅에게 빌어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원했다. 그러자 신인이 신령스러운 쑥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이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모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곰과 범이 이것을 얻어먹으면서 삼칠일을 참은 끝에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지만, 범은 참지 못해 사람의 몸을 얻지 못했다. 곰네는 더불어 혼인할 사람이 없으므로 늘 신단수 밑에서 잉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혼인하고, 아들을 잉태해 낳으니 ‘단군 왕검’이라고 불렀다.<sup>23)</sup>

일연이 환인은 “下視三危 太伯可以弘益人間”라고 한다. 즉, 이가원의 번역처럼 환인은 땅에 세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들 환웅을 태백산으로 보냈다. 그리고 인도 신화에서는 인드라의 천계가 지상의 비슈와미트라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다. 이는 세 가지 위험 중에 인도의 원주민 왕이 그 중의 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령 일연이 인도 신화 이야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삼국유사』를 쓴 것이었다면 환웅의 강림에 대해 인드라 즉, 환인이 자신의 아들 환웅을 안전한 곳인 태백산에 보냈다는 식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후, 환웅은 태백산에 도착하여 신단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여 神市를 개척했다고 한다. 신단 나무는 인도어로 ‘천단(Chandan)’<sup>24)</sup>이라고

23) 일연(이가원 외 옮김), 『삼국유사』, 한길사, 66쪽.

24) 인도문화에서 의식을 지낼 때 천단 나무의 조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이는 영어로 샌달(Sandal), 한문으로 ‘단’ 이다.

하는데, 이는 신에게 제의를 올릴 때 필수적으로 제단에 올라가는 나무 조각이며, 장례식을 치를 때나 제사를 지낼 때 천단 나무 없이 진행할 수 없으며, 결혼할 때 천단 나무 없이 결혼이 완성되지 않다는 전통이 있다. 『삼국유사』에서 환웅이 신단 나무 아래 나라를 개척한다는 것은 인드라의 고대문화에 대한 계승과 교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웅녀가 늘 신단수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천단 나무의 가치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신단의 ‘단’ 발음을 가지고 ‘단군’의 이름까지 지었다는 것은 더욱더 의미심장하다. 즉 인드라가 사는 고대 문화의 상징이 단군의 이름과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군 신화에서 단군의 탄생 이후 환웅과 환인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리고 단군신화와 관련한 다른 텍스트에서는 환웅에 관한 정보 또한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환웅이 천계가 안정되자 다시 아버지의 천상에 돌아간다거나 멘카처럼 다른 곳으로 떠나 거처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天符印을 주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천부인에 대해서 부적과 인장 두 가지로만 해석하거나, 거울, 칼, 방울<sup>25)</sup>로 해석한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 천부인은 ‘천명’, ‘부적’ 그리고 ‘인장’ 총 3가지의 요소를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천명을 내린 인드라 환인은 한반도를 떠나고, 천명을 받은 환웅은 한반도에 남아서 생활했을 것은 분명하다. 천신의 신분인 환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일연이 태백산에서 태어난 ‘반천신 반인간’<sup>26)</sup>의 몸을 가진 단군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일 수 있다.

25) 정우락은 천부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사장이 사용하는 巫具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거울, 칼, 방울일 것을 주장한다. 정우락, 『삼국유사 원시와 문명 사이』, 앞의 책, 58~60쪽.

26) 필자가 단군에 대해서 반천신 반인간의 존재로 본 이유는 인도의 신화와 비교했을 때, 인도의 원주민이 하늘의 요정과 결혼했듯이 마늘과 쑥을 먹은 웅족이 원주민으로서 하늘의 신과 결혼했다는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과 신의 결합에 의해 탄생한 단군은 반천신 반인간으로 간주된 것은 합리적이다.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씨가 나타나 성이 태어났다. 심지어는 무지개가 신모를 둘러싸서 복희를 낳았고, 용이 여등과 교접해 엄체를 낳았다.<sup>27)</sup>

『삼국유사』에 인드라와 단군의 관계 이외에도, 중국의 시조로 평가받는 복희와, 인드라 사이의 미묘한 관계 또한 매우 흥미진진하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일연은 『삼국유사』의 편찬 의도를 밝힐 때 복희를 낳은 존재가 무지개라고 했다. 단군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복희의 아버지인 무지개의 정체가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문헌에 따르면 “무지개”는 인드라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인드라 다누쉬(Indra Dhanusha)’라고도 불린다. 이는 ‘인드라의 활’이라는 뜻이다. 비록 인도에서 인드라 신은 종교적으로 사원에서 숭배와 기도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지만 자연적으로는 현재 인도 사람들은 하늘에 무지개가 보이면 ‘인드라 신’ 또는 ‘인드라 활’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만큼 인드라가 전 세계를 관장하며 풍요를 상징하는 절대적인 이미지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신화적으로 인드라는 인도 원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신이자 중국 시조 복희의 아버지이자 한민족 시조 단군의 할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sup>28)</sup>

### Ⅲ. 가야국과 인도의 聖地 가야

『삼국유사』에 인도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으로는 가야국, 수로왕 이야기와 인도 아유다야 공주 허황옥의 이야기가 있다. 가야국의 이야기는 『삼국유사』의 紀異 下편에 자세하게 나온다. 가야국은 1세기쯤에 존재한

27) 일연(이가원 외 옮김), 『삼국유사』, 앞의 책, 63쪽.

28) 1923년에 이병도가 “우리 조선 사람은 자래로 기자를 단군 다음가는 조상으로 믿어 왔다” 사실을 언급하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 기자 조상 설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李丙燾, 「朝鮮史概講(三)」, 『동아일보』, 1923. 복희와 단군의 조상이 똑같이 인드라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중국인인 箕子가 조선 사람들에게 조상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잘못 발생하게 된 것이라 짐작해 본다.

왕국이었고, 이 왕국의 건국 이야기를 밝힌 자가 13세기에 살았던 승려 일연이다. 그러나 수로왕과 인도 공주의 결혼은 너무나도 환상적이어서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가야국의 건국 이야기를 실제적 역사 기록보다 문학 이야기로 간주하며 한국의 가야와 인도의 가야에 대해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가야라는 명칭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싯타르타가 도를 구하기 위해서 가족과, 고향인 카필라와스투(Kapilavastu)를 떠나 인도 중북부 지역인 마가다(Magadha) 왕국의 어느 지역에서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붓다(부처)가 되었다. 그 지역의 이름이 바로 ‘가야(Gaya)’이다.<sup>29)</sup> 우연의 일치겠지만 발음이 매우 비슷하며, 인도와의 문화적인 깊은 교류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한국의 가야와 인도의 가야가 서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 보인다. 가야는 석가모니의 성불 장소라 불교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시대 때부터 인도 굽타(Gupta) 왕조 때까지는 가장 번성하고 강한 마가다 왕국의 영향으로 인해 전인도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다. 따라서 인도 가야의 명성이 불교적 교류로 인해 문학적인 방식으로 일연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가야라는 명칭에 대한 비교 이 외에 가야국을 개척한 왕인 수로의 정체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29) 가야는 현재 인도의 비하르 주에 있는 도시로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장소로 유명하다. 이는 석가모니의 誕生지 룸비니, 최초의 설법지인 녹야원(사르나트)과 열반지인 쿠시나गर과 함께 불교의 4대 성지로 알려져 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는 기원전 3세기경에 아쇼카왕이 세운 마하보디 대탑이 있었다. 단, 현재의 탑은 아쇼카왕 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중국의 법현과 현장의 기록에 따르면 409년과 637년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추측된다. 대탑 서쪽에 있는 金剛寶座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자리로, 앞에는 보리수 한그루가 심어져 있다. 대탑 남서쪽에는 석가모니가 고행을 끝내고 목욕을 한 연못이 있다. 불교의 4대 성지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이 명칭을 따서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천지가 개벽한 뒤 이 땅에 아직 나라의 이름이 없었고, 임금과 신하의 칭호도 역시 없었다. … 나라 이름을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 불렀는데, 6가야 가운데 하나이다.<sup>30)</sup>

그 땅에 이르러 나라를 열고 ‘가야’라 했다가, 후에 나라 이름을 ‘금관국’으로 고쳤다.”<sup>31)</sup>

가야국에 관련되는 내용은 일연의 『삼국유사』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위와 같이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김부식의 『삼국사기』 열전 제1편 ‘김유신 상’에 나온 설명이다.<sup>32)</sup> 김부식은 “그 땅에 이르러 나라를 열고 ‘가야’라 했다”라고 언급한다. 이 말은 왕이 어딘가에 도착했다는 이주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와 유사하게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이 땅에 아직 나라의 이름이 없었고, 신하의 칭호도 없었다’고 말하며 ‘나라를 새롭게 개척한다’는 것을 소개한다. 두 텍스트를 같이 놓고 본다면 일연이 설정한 가야국의 왕은 분명 현지 사람이 아니며, 외부에서 들어와 나라를 개척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佛法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인도와의 밀접한 교류, 불교 성지로 간주되는 인도 가야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수로라는 인물은 인도의 ‘가야’라는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일연이 형상화한 수로왕은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인도인일 가능성이 크다.

후한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42) 3월 禊浴日에 그들이 살고 있던 북쪽 구지에 수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다. 200~300명 무리가 그곳에 모여들자 사람의 말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몸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났다.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9간 등이 말했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 말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30) 일연(이가원 외 옮김), 『삼국유사』 앞의 책, 205~208쪽 참조.

31) 김부식(이강래 옮김), 『삼국사기』, 한길사, 2012, 748쪽.

32)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유신은 왕경 사람이다. 그의 12세 할아버지는 수로이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 그 땅에 이르러 나라를 열고 ‘가야’라 했다가, 후에 나라 이름을 ‘금관국’으로 고쳤다.” 김부식(이강래 옮김), 앞의 책, 748쪽 내용 참조.

대답해 말했다. “구지봉입니다.”

또 말했다. “하늘에서 내게 명하기를 ‘이곳에 내려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곳에 내려왔다. 너희들은 모르시기 봉우리 위를 파서 흙을 집으며 이렇게 노래하라.

거복아 거복아

머리를 내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아 기뻐 뛰게 될 것이다. ...

그 달 보름에 즉위했는데,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라고 했다. 혹은 ‘수릉’이라고도 했다. 나라 이름은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 불렀다.<sup>33)</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수로왕이 가야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나라를 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하늘에서 내게 이곳에 내려가 나라를 새롭게 개척하고 임금이 되어라”라는 말은 수로왕이 곧 이방인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수로왕의 이름인 ‘수로’ 또는 ‘수릉’인데, 음성적으로 태양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인 ‘수르’ 혹은 ‘수르야’와 매우 흡사하다.

텍스트에 따르면 왕이 오기 전에 구지봉에서 먼저 신비스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가 들리는 날은 음력 3월에 있는 계육일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늘날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명절이다. 국내 판본 『삼국유사』의 각주 해석에 따르면 이날은 사람들이 ‘액운을 없애려는 뜻으로 물가에서 몸을 씻고 함께 모여 술을 마시는 풍습이 있는 날’이다.<sup>34)</sup> 이러한 일연의 설명은 기원전부터 전해 내려온 인도의 홀리 명절을 연상하게 한다. 인도에서 홀리 명절은 봄이 왔다는 것을 상징하며 사람들은 이 날에 술을 마시고 천연색소를 물에 섞어서 서로에게 뿌리며, 노래하면서 춤을 춘다. 이렇게 함으로써 액운을 없애고, 새로운 인간으로 성장한다

33) 일연(이가원 외 옮김), 앞의 책, 205~208쪽.

34) 일연(이가원 외 옮김), 앞의 책, 205쪽·146쪽의 각주 참조.

고 믿는다. 이 명절은 고대 인도의 영향권인 미얀마와 태국에서도 약간의 다른 형태로 축하하고 있었다. 거기서도 물을 뿌려서 액운을 없앤다는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sup>35)</sup> 일연의 서술 방식은 마치 음력 3월의 이날에 왕이 백성들에게 찾아왔으니 함께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액운을 없애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자는 것처럼 보이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수로왕이 가야에 도착한 지 4년 만에 아유타국<sup>36)</sup>의 공주가 그에게 찾아온다는 것 또한 우연의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수로왕이 한반도의 현지인이었다면 외국인 여성과의 갑작스러운 혼사를 금방 수락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로왕이 나라를 개척하고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 공주의 아버지가 딸을 시집으로 보내 남편과 만나게 한다는 식의 해석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더 살펴보자.

건무 24년 무신(48)년에 9간들이 조회할 때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께서 강림하신 이래 아직 아름다운 짝을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청컨대 신들의 집에 있는 처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골라서 궁중으로 들여보내 배필로 삼도록 하십시오.

왕이 말했다. “짐이 이곳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이고, 짐의 배필로 왕후가 되는 것도 하늘의 명이니 그대로 염려 말라.”

---

35) 계육일은 삼짇날로도 불린다. 기존의 설에 따르면 이 날은 冤厄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몸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청정한 물로 몸을 씻는 명절이다. 그리고 동양 일부 지역에서 이것을 春禊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날에 백성들이 몸을 씻고 제사를 지내며 상서롭지 못한 일을 제거한다. 즉, 이날에는 지난 한 해의 묵은 때와 액운을 씻어내고, 불길한 징조를 없애는 날이라고 믿는다. 인도에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봄의 시작을 맞이한다는 명절인 홀리는 역시 계육일처럼 보름날에 축하하는 명절이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태국과 미얀마에서도 같은 시기에 물로 몸을 씻는 명절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미얀마의 띠잔(Thingyan) 명절과 라오스, 캄보디아 및 태국의 송끄란(Sangkran) 명절은 계육절과 비슷하게 액운을 씻어내는 등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36) 아유타국의 또 다른 이름은 코살라(Koshala)국이다. 코살라국은 가야가 위치한 고대 마가다(Magadha) 왕국의 이웃 국가로, 고대 인도에서 2번째로 가장 융성한 왕국이었으며, 가장 오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석가모니의 시대에도 코살라와 마가다 왕실 간에 혼인 교류가 있었다. 아유타는 또한 인도의 『라마야나』 대서사시의 주인공인 라마(Rama) 신의 왕국과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곧 유천간에게 명해 가벼운 배와 좋은 말을 끌고 망산도에 가서 기다리게 하고, 다시 신귀간에게 명해 승점까지 가서 있게 했다. 갑자기 바다 서남쪽으로부터 붉은 돛을 달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는 배가 북쪽을 향해 왔다. …

왕후는 산 밖에 있는 별포 나무에 배를 매어두고 육지에 올라 높은 언덕에서 쉬었다. … 그곳에는 시종해 온 잉신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신보와 조광이었으며, 그들의 아내 두 사람은 모정과 모량이라고 했다. 또 종들까지 아울러 헤아리면 20여 명이나 되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비단, 두꺼운 비단과 얇은 비단, 의상, 필로 된 비단, 금과 은, 구슬과 옥, 아름다운 옥, 장신구들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sup>37)</sup>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신하들은 수로왕이 한반도에 강림한 후 아직 짝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신하들의 아름다운 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배필로 삼으라고 청하지만 왕은 단번에 거절한다. 왕은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의 명이라고 하며, 배필로 왕후를 맞이하는 일도 하늘의 명이라고 하면서 신경을 쓰지 말라고 답한다.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어린 나이에 定婚을 실시하는 문화가 있었고, 성인이 되면 곧바로 약속된 시집에 보내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인도에서는 흔히 중매결혼을 하늘의 뜻으로 여겨 신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하면 수로왕의 답은 자신이 이미 정혼, 또는 약혼의 상태에 있음을 암시하는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삼국유사』에서 수로왕이 가야국에 있으면서 인도로 연락했다는 내용이나, 혼사에 관한 설명이 없이 갑작스럽게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가 그에게 찾아왔다. 이에 대해 수로왕은 놀라거나 망설임 같은 반응은 없이, 신하에게 명을 내려 공주를 마중하게 보낸다. 아유타국의 공주와 함께 온 사람들로써는 두 명 잉신, 20명이나 되는 하인이 있었으며, 혼사 지참금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귀중한 보석 및 장신구들이 있었다. 이는 공주가 애초부터 지참금을 가지고 자신의 약혼자에게 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일연의 서술 방식을 보면 아유타국 공주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름을 가야로 정한 수로왕 역시 인도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37) 일연(이가원 외 옮김), 앞의 책, 211쪽.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인데, 나이는 16세입니다” ...

왕은 답했다. “짐은 나면서부터 자못 신성해서 공주가 멀리서 올 것을 먼저 알고 있었소”<sup>38)</sup>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수로왕은 공주가 멀리서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언어적인 장애나 통역관도 없이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 이를 보아 둘은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가 볼 때 『삼국유사』의 여러 가지 묘사가 수로왕과 허황후 두 사람이 같은 문화어권의 사람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한국의 가야와 인도의 가야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고대의 문화적 교류의 영향력으로 인해 명칭의 유사성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야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인도 공주와 결혼한 수로왕의 신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일연이 인식한 수로는 1세기의 인도 왕자로서 인도의 계육절 문화를 한반도에 소개해 주었다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과 인도 사이에 단지 불교적인 교류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일연은, 1세기였던 수로왕의 시기부터 한반도는 이미 다민족적이고, 다문화의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 IV. 결론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신화는 한반도에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웅족과 호족을 언급하고, 세 번째 종족인 환인의 아들이 들어와 함께 살다가 혼혈아를 낳았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이 옛날부터 다민족적인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또는 비록 『삼국유사』 전반을 고찰하면 중국과

---

38) 일연(이가원 외 옮김), 앞의 책, 212쪽.

신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연의 승려 신분을 생각하면 어쩌면 일연은 당시 중국 원나라가 고려를 침략하려는 야심을 보고 위기감을 느껴 한민족의 문화를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불교를 타자화하는 경향이 있는 유교의 나라인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포스트 차이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도 문화의 요소를 『삼국유사』 속에 첨가한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본고는 『삼국유사』의 문학적성과 거기에 등장한 인도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주목하며, 단군신화 및 가야국 건국 신화를 중심으로 인도의 신화 이야기와 왕국 이야기와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존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들을 논의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 일연의 의식 속에서 단군의 할아버지 즉, 환인이자 제석 천황인 인드라는 어느 나라만의 신이 아니었다. 인드라는 수미산에 살면서 전체 아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인도의 원주민들을 지배했다가 공격을 당해 자신의 후손을 동쪽으로 보내야 했다. 그는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의 북동 지역인 중국과 한국을 선택했다. 그렇기에 일연의 텍스트에서 인드라가 중국 복희의 아버지와 한국 단군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이와 다르게 인도인들의 시조라고 여겨지는 바라타는 인드라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원주민과 천상 비천의 딸, 그리고 또 다른 신인 두산타의 후손이라 봐야 한다. 결국은 인드라는 인도에서 잊혔고, 그는 자신의 흔적을 중국과 한국에 남기게 되었다. 오늘날 인도보다 동아시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역시 제석 천황과 같은 계보의 인물이다. 두 존재는 모두 인도 원주민의 문화와 사상적으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야와 인도의 가야를 비교하며 불교의 영향력이 끼친 지명 계승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도인 왕자와 공주에 대한 설정을 통해서 지참금 문화 및 유사한 명절 문화의 유입 양상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오늘날의 한반도에서 이러한 문화 현상이 존재하지 않으나 일연의 서술을 통해서 당시의 다문화적인 사회현상을 찾아볼 수 있어 이는 한국과 인도 사이의 문화적 교류 양상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

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의 이야기, 환인 제석 천황의 이야기 및 김수로 왕과 아유타국 공주의 이야기를 살펴본 것 외에도 한국을 방문한 인도인 승려와 인도로 찾아간 한국인 승려의 이야기들도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 역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興法」 편에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연다’는 이야기가 있고<sup>39)</sup>, 「義解」 편에 천축인 인도로 간 여러 한국 승려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阿離耶跋摩<sup>40)</sup> 승려는 신라 사람이고 고대 인도의 가야 부근에 있는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아리나 발마라는 이름은 인도인의 이름과 같다. 또한 “惠業, 玄泰, 求本, 玄格, 惠輪, 玄遊와 지금은 이름을 잊어버린 두 법사가 모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불법을 쫓아 석가의 교화를 보러 중천축국까지 갔다”라며 “그 가운데는 중도에서 죽은 자도 있고, 살아남아 그곳 절에 머물렀던 자도 있지만 결국 신라나 당나라로 다시 돌아온 자는 없었으며, 오직 현대사만 당나라에 돌아왔는데, 그도 역시 어디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sup>41)</sup>고 한다. 이들의 인도, 중국, 한국에서의 활동 양상 및 인명 검증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천축인 즉 인도 사람들은 한반도를 ‘矩矩訶磬說羅’<sup>42)</sup>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구구타’는 옛날 인도말로 닭을 의미하고, ‘예설라’는 존귀함을 뜻한다고 한다. 이는 인도에서 신라를 부를 때 사용하는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러한 수많은 지명이나 인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텍스트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고, 『삼국유사』를 통해 민족 간의 더 흥미로운 교류 양상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관련되는 연구가 이루어지면 고대 양국 간의 교류 가능성을 더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39) 일연(이가원 외 옮김), 앞의 책, 226쪽 참조.

40) 일연(이가원 외 옮김), 앞의 책, 349쪽 참조.

41) 일연(이가원 외 옮김), 앞의 책, 349쪽 참조.

42) 일연(이가원 외 옮김), 앞의 책, 49쪽.

끝으로, 필자는 인도인으로서 한국과 인도의 신화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연은 마치 환인이 인도 대지의 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환웅을 한반도로 보내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 인도의 왕자인 수로가 따라오게 되어 가야 왕실 및 가족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듯이 집필했음을 주장해보고자 한다.

라마누잔이 고전 서사시 『라마야나』의 서술 방식이 300 종류 이상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는 인도인들이 지속적으로 『라마야나』의 고전 이야기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어왔다는 것이다.<sup>43)</sup> 따라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다양한 신이한 이야기들을 하나의 좁은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더 풍부하고 세계화 콘텐츠 개발의 면에서 확장의 가치 있는 문학 텍스트로 여겨야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와 같은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삼국유사』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삼국유사』가 한민족적이면서도 글로벌적인 예술 작품으로 승화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3년 02월 0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2월 27일부터 03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3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43) 인도학자 라마누잔이 서사시 『라마야나』를 언급하면서 ‘『라마야나』가 몇 개나 될까요? 삼백 개? 삼천 개? 일부 『라마야나』가 끝나면 때때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긴다. 과연 『라마야나』가 몇 개나 될까요?’라고 말한 바가 있다. A. K. Ramanujan, *Three Hundred Ramayanas : Five Examples and Three Thoughts on Translations*, The Collected Essays of A. K. Ramanuja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이것은 고전 텍스트가 다양한 버전으로 읽히는 콘텐츠여야 함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일 연(이가원 외 옮김), 『삼국유사』, 한길사, 2014.  
김부식(이강래 옮김), 『삼국사기 1, 2』, 한길사, 2012.  
李丙燾, 「朝鮮史概講(三)」, 『동아일보』, 1923.  
발미키, 『라마야나』, 민족사, 1993.  
비야사, 『마하바라타』, 민족사, 2005.  
칼리다사 『샤쿤팔라』, 박경숙 역, 지식산업사, 2002.
- 고운기, 『삼국유사의 재구성』, 역락, 2021.  
사재동, 『삼국유사의 문예 현상과 문학의 갈래, 그 연행 양상』, 민속원, 2021.  
서철월, 『삼국유사 속 시공과 세상』, 지식과교양, 2022.  
신동욱, 「신화비평론 서설」, 『신화와 원형』, 고려원, 1992.  
이명재 외, 『문학비평의 이해와 활용』, 경진, 2014.  
정우락, 『삼국유사 원시와 문명 사이』, 역락, 2012.  
최광식, 『삼국유사의 신화 이야기: 신화인가? 역사인가?』, 세창출판사, 2018.  
최광식, 『『삼국유사』 읽기』, 세창미디어, 2021.  
표정욱, 『삼국유사와 대화적 상상력』, 세종, 2013.  
Tae-Hung Ha, Grafton K. Mintz, 『Samguk yusa : Legends and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of Ancient Korea』, Yonsei University Press, 1972.  
Kim Dal Young, 『Overlooked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orean Kingdoms』, Jimoondang, 2006  
Dr. Tulsi Ram, Rig Veda(English translation), Arsh Sahitya Parchar Trust Press, New Delhi, 2006.
- 고은채, 『『삼국유사』 「수로부인」 전승의 서사구조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김성환, 「단군 신화에서 역사로」, 『동북아역사논총』 76, 동북아역사재단, 2022.  
김은령, 「삼국유사의 佛法傳書적 이해」,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명계환, 「『삼국유사』의 불교(佛敎) 관련 문헌(文獻)과 과제(課題)」, 『불교철학』 9,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2021.
- 박기석,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읽기의 한 방법」, 『문학치료연구』 1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 백승충, 「가야문화권의 성립과 그 의미」, 『영남학』 1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 서순희, 「『삼국유사』의 밀교신앙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양지옥,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적용 연구: 『삼국유사』 소재 스토리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의 원전비평- 누락자, 연자, 전도구 등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64, 한국중원언어학회, 2022.
- 원양희, 「『삼국유사』 속 인물들의 미적 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윤승준,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단군신화 연구 비판」, 『한국고대사탐구』 4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2.
- 윤용혁, 「몽골전란과 『삼국유사』의 일연- 『삼국유사』를 통해서 본 몽골전란」, 『한국중세사연구』 69, 한국중세사학회, 2022.
- 이대형, 「『삼국유사』 소재 ‘기이’의 서사방식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1, 한국한문학회, 1998.
- 이상설, 「『三國遺事』 人物說話의 小說化 過程 研究」, 明知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5.
- 이은주, 「『三國遺事』 土着信仰의 불교적 融和 과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이재원, 「단군신화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韓國漢文學研究論文集』 4, 한국체육대학교, 1999.
- 이지환, 「삼국유사의 불국토 세계관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정귀원, 「서사구조로 본 『삼국유사』: 공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정우락, 「종가 문화의 세계유산적 전망」, 『영남학』 3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 정진원, 「『삼국유사』의 한국학 콘텐츠 개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차광호, 「『삼국유사』 “기이(紀異)” 편의 저술 의도와 고구려 인식」, 『史學志』 41, 단국사학회, 2009.
- 하카마타미즈야스, 「『삼국유사』에 있어서의 환인과 제석- 일본의 천신신앙을 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淵民學志』 14, 연민학회, 2010.
- James H. Grayson, 『Digging Up Buddhism: Tales Affirming the Antiquity of Buddhism in the Samguk Yusa』, 『Acta Koreana』 Vol. No.-7, Academia Koreana, 2004.
- Richard D. Mc Bride II, 『Is the Samguk yusa Reliable? Case Studies from Chinese and Korean Source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No.- 11(1), Duke University Press, 2006.
- Richard D. Mc Bride II, 『Preserving the Lore of Korean Antiquity : An Introduction to Native and Local Sources in Iryon's Samguk Yusa』, 『Acta Koreana』 Vol. No.- 10, Academia Koreana Press 2007.
- Sorensen and Henrik H., 『Problems with Using the Samguk yusa as a Source for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Cahiers d'Etudes Coreennes』 Vol.-7, Centre d'etudes Coreennes of the College de France, 2000.

Abstract

## Comparison of Similarities Between Founding Mythology in 『Samguk Yusa』 and Indian Mythology

Khan Afzal Ahmad

『Samguk Yusa』 is the oldest book that preserves the ancient stories of the Korean people along with 『Samguksagi』. However, 『Samguk Yusa』 is not simply a history book but has a rich literary character. Therefore, it should be seen that the value of text expansion is much higher in terms of content development than 『Samguksagi』.

This paper focused on the literary value of 『Samguk Yusa』 and compared the myth of Dangun with India's founding mythology.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Dangun was a mixed-race child born of the god of heaven and the native of the earth, just like Bharata, the ancestor of Indian people. However, while Dangun, the ancestor of the Korean people, is a direct descendant of Indra, the heavenly emperor Jeseok, Bharata, the ancestor of India, is a direct descendant of another god. Since Indra, the heavenly emperor Jaeseok was the god who ruled the Indian subcontinent, when he sent his son Hwanung to the Korean Peninsula, he descended him under shindansu, the holy sandal tree, along with Indian culture. It seems that this is why the shindansu, the sacred sandal tree, became important, and his son was given the name Dangun. Due to this background, later Buddhist cultural exchanges led to the emergence of the Korean kingdom of Kaya. Considering the explanations of Kim Pusik and Il-yeon that King Suro, the founder of the Kaya kingdom, was a stranger who brought a culture

similar to an unfamiliar festival from an unknown place, it is very likely that King Suro was an Indian prince from a literary point of view. Perhaps Ilyeon was attempting a post-China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story of India for reducing the Yuan Dynasty intervention in Korea.

In 『Samguk Yusa』, various Indian elements appear in various aspects, such as names of people, places and Buddhism terminologies , so for an in-depth reading of 『Samguk Yusa』, it is necessary to conduct comparative studies in various ways from the perspective of Indian culture.

**keywords :**

Ilyeon, Samguk Yusa, Korea, India, Founding Myth, Kaya, Gaya, Buddhist Culture